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 연구

- 교유시(交遊詩)와 선유(船遊)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최윤정*

〈차례〉

1. 서론
2.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과 교유관
 - 1) 『간송집』 소재(所載) 교유 문학
 - 2) 간송 조임도의 교유관
3.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 나타난 인식 양상
 - 1) 존현(尊賢)과 시대(時代) 인식
 - 2) 풍류(風流)와 처사(處士) 인식
 - 3) 지음(知音)과 연대(連帶) 의식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1585~1664)의 교유 문학을 고찰하였다. 간송은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의 장점을 흡수하여, 두 학파의 관계를 융화시키려고 평생 노력한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간송 작품 중에 교유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간송집』 소재 작품 중에서 교유 인물과 관련된 교유시(交遊詩), 선유(船遊) 관련 작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송이 저술한 선유록(船遊錄)은 교유 인물들과 즐겼던 뱃놀이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의 교유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간송은 편벽되고 경박한 본인의 단점을 벗의 유익함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교유 인물과의 나이 차이나 물리적 거리 등과 같은 요인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한 정신적인 교유와 선비정신을 강조하였다.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 나타난 인식 양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존현(尊賢) 정신과 시대(時代) 인식이 나타난다. 둘째, 풍류(風流) 정신과 처사(處士)적 지향성이 나타난다. 셋째, 지음(知音)과 연대(連帶) 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 나타난 특징은 17세기에 산림처사(山林處士)로 지냈던 문사(文士)의 소통 방식과 그들의 문화적 공유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출사(出仕)를 하여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당대 지식인으로서 그들의 소통망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였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는 선비정신이 구현되어 나타난다. 자연 속에서 수양하며 산림처사로 지내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였고, 성현의 도를 따라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제어 간송 조임도, 산림처사(山林處士), 교유 문학, 선비정신, 존현(尊賢), 풍류(風流), 지음(知音), 연대(連帶)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1585~1664)의 교유 문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간송 조임도는 남명학파의 본거지인 경상우도에서 활약하면서도, 퇴계학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의 사상적 특징으로는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장점을 흡수하여, 두 학파의 관계를 융화시키려고 평생 노력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¹⁾

간송 조임조는 8세 때에 임진왜란을, 14세 때는 정유재란을 만나 아버지를 따라 피난을 다니며 영주·봉화 등지로 옮겨 다녔다. 그 때 봉화에서

1) 허권수(2001),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을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 11,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374~375쪽.

반천(槃泉) 김중청(金中淸)에게 배웠는데, 김중청은 퇴계학파인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제자였다.

17세(1601년) 때 다시 인동으로 옮겨가 살았는데, 간송의 아버지가 자주 이사를 다닌 이유는, 문헌의 고을인 경상좌도 일대를 두루 유학하여 간송의 학문을 폭넓게 만들어 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때 간송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뵈고 스승으로 삼았는데, 여헌의 조언에 따라 이름을 ‘기도(幾道)’에서 ‘임도(任道)’로 바꾸게 되었다.

20세(1604년) 때 향시에 합격하였고, 30세인 1614년에는 동당시(東堂試)에, 그 이듬해 향해(鄕解)에 합격하였지만,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참된 학문을 하기 위해서, 32세 때에 과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독서에 전념하였다.

34세(1618년) 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 조정의 6품 이상의 관원들의 수의(收議)가 있었는데, 간송은 신자(臣子)로서 대비(大妃)를 폐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 인하여 대북파(大北派) 세력들을 피하기 위해서 칠원현(漆原縣)의 내내(柰內)로 피신하여 상봉정(翔鳳亭)을 짓고 살았다. 43세(1627년)가 된 해인 정묘호란 때 향인(鄕人)이 조임도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신병(身病)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50세(1634년) 때 공릉참봉(恭陵參奉), 63세(1647년) 때 대군사부(大君師傅), 75세(1659년) 때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신병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다. 80세(1664년) 때 병환으로 사망하자, 조정에서 미포(米布)로 부의를 내렸다. 사헌부지평에 증직되고, 함안의 송정서원(松亭書院)에 제향되었다.²⁾

평생을 산림처사(山林處士)로 살았던 간송 조임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사상 분야에서 시작된 연구는 남명(南冥)·퇴계(退溪) 양학파(兩學派)의 융화를 위해 노력한 간송 조임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³⁾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간송 조임도의 학문과 사상

2) 『間松集』 年譜 참조

3) 허권수(2001), 위의 논문, 358~387쪽.

을 여헌 장현광과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밝힌 바 있다.⁴⁾ 또한, 17세기 한려학인(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선유(船遊)를 통해 본 낙강(洛江) 연안 선비들의 집단 의식을 살핀 연구에서 간송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거론한 논의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17세기를 살았던 낙강 연안 지역의 선비 가운데 선유(船遊) 취향이 단연 특별했던 사람은 조임도라고 평가하고, 그의 선유록(船遊錄) 작품 중 일부를 고찰하였다.⁵⁾

그리고, 간송의 구체적인 작품 연구로는 조임도의 〈삼강구절구(三綱九絕句)〉에 대한 것이 진행되었다. 간송이 〈삼강구절구(三綱九絕句)〉를 통해 향촌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도덕적, 문화적 전범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⁶⁾

문학적인 논의는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처사적 삶을 지향한 간송의 문학이 조선조 여느 사인(士人)들이 현실세계와 타자로 인해 귀거래한 피세적 경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⁷⁾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⁸⁾

기존 연구는 간송 조임도의 사상적 특징과 학맥을 살핀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작품 연구도 부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
- 4) 김우형(2007), 「간송 조임도의 학문과 사상- 여헌 장현광과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9~56쪽.
- 5) 김학수(2010), 「船遊를 통해 본 洛江 연안 선비들의 집단 의식- 17세기 寒旅學人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85~91쪽.
- 6) 박순남(2005), 「간송 조임도의 〈三綱九絕句〉에 대하여」, 『국제지역통상연구』 2, 국제지역통상학회, 46쪽.
- 7) 오용원(2007),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선주논총』 10,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원, 69~90쪽. (오용원(2010),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시세계」,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409~429쪽, 재수록, 본 논문에서는 2010년 논문을 주로 인용함.)
- 8) 김소연(2020),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84집, 한국문화회, 107~140쪽.

기존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간송 작품 중에 교유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송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연구와 유림활동만 한 순수한 선비로서 일생을 보냈지만, 세상을 등진 결신(潔身)·장왕(長往)의 자세는 아니었고, 우국연민(憂國憐民)의 사상을 확고하게 지니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선비였다.⁹⁾

간송이 출사(出仕)를 하지 않았지만, 일생동안 현실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간송의 교유 문학에는 이러한 소통의 과정과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현실과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열린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 연구를 통해 그의 교유관과 인식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과 교유관

1) 『간송집』 소재(所載) 교유 문학

『간송집(澗松集)』은 연보, 원집 5권, 별집 2권, 속집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집은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이 1744년에 지은 서(序)가 있고 이어서 세계도와 연보, 목록이 있다. 『간송집』 소재 작품 중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유 인물과 관련된 교유시(交遊詩), 선유(船遊) 관련 작품에 한정한다. 본 연구는 간송 조임도와 교유 인물들과의 상호 관계와 문학에 나타난 인식 양상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교유

9) 『澗松集』 解題 참조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挽詩)·만사(挽詞) 등의 애제류(哀祭類) 등의 작품은 제외한다.¹⁰⁾

시작품은 원집 권1, 권2에 오언고시,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고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칠언배율이 시체별(詩體別)로 212제(題)가 실려 있다. 그리고 속집 권1, 권2에도 시체별(詩體別)로 198제(題)가 실려 있다. 원집과 속집에 수록된 시작품 수는 총 410제이다. 이 중에서 교유 인물을 대상으로 지은 교유시는 248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 교유시는 185제이고, 죽은 이를 대상으로 지은 만시(挽詩)나 애도시는 63제이다.

별집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에는 록(錄) 6편, 서(序) 1편, 설(說) 1편, 기(記) 1편 총 9편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선유(船遊) 관련 기록은 대부분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선유(船遊) 관련 작품에는 간송 조임도가 당대인들과 집단적으로 교유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간송집』 소재 교유시와 선유 관련 작품을 정리하고, 주요 교유 인물과 관련된 작품 목록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 간송집 소재 교유시

차운시 (次韻詩)	증여시 (贈詩/寄詩)	송별시 (送別詩)	기타 (시적 소재나 대상인 경우)
46제	35제	16제	88제

일반 교유시 185제 중에서 교유 인물이나 그들의 작품에 차운한 시는 46제, 상대방에게 바치거나 준 증여시는 35제, 교유 인물과 만났다가 작별을 하거나, 관직에 임명되어 떠날 때 송별하며 지은 시가 16제이다. 이 외에 교유 인물과 특정 장소에서 노닐거나, 그들과 화답하며 시적 소재나 대상

10)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교유 인물의 범위는 간송이 사귀었던 동년배 친구뿐만 아니라, 간송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관계를 유지했거나,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스승과 선배, 친인척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설정하였다.

으로 삼은 시가 88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표2] 선유(船遊) 관련 작품 목록

작품명	유람 시기	주요 내용
별집 권1 〈용화산하동범록후서 (龍華山下同泛錄後序)〉	1607년 음력 1월 (23세)	한강 정구가 용화산 아래 도흥(道興)에 머물렀을 때, 여헌 장현광 등에게 인사를 여쭙라는 아버지 조식의 편지를 받았고, 그날 저녁 함안으로 와서 하루를 묵은 뒤 아버지 및 숙부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도흥보로 가서 선유 일행과 합류함.
권4 〈내내선유서기후발 (奈內船遊序記後跋)〉	1626년 음력 3월 (42세)	한몽삼, 박도원, 조영문과 함께 내내(奈內) 강사(江舍) 주변에서 뱃놀이하며 쓴 서기(序記)에 대한 발문(跋文)
별집 권1 〈심현록(尋賢錄)〉	1626년 음력 7월 (42세)	조은 한몽삼 등과 함께 내내(奈內) 강사(江舍)에서부터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현풍의 도동서원, 인동의 오산서원(吳山書院)을 둘러보고, 인동에서 여헌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창녕을 거쳐 돌아온 기행문
권4 〈경양대하선유기 (景釀臺下船遊記)〉	1628년 음력 4월 (44세)	이도보, 유행길, 양훤 등이 자제 몇 명을 데리고서 배를 마련하고 휘장을 설치하여 이강 위에서 함께 노닐 기록
별집 권1 〈과종록(過從錄)〉	1629년 음력 3월 (45세)	임곡 임진부와 함께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경양대(景釀臺), 우포(鰲浦), 망우정 등을 둘러보고 인근의 사우들과 어울려 노닐 기록
별집 권1 〈유관록(遊觀錄)〉	1635년 음력 3월 (51세)	김해 신산서원 원장을 맞아 춘향에 참제(參祭)하기 위해서, 사우들과 칠원 내내에서 배를 타고 김해까지 왕환(往還)한 기행문
별집 권1 〈개진기회록(開津期會錄)〉	1643년 음력 3월 (59세)	등암 배상룡 등과 함께 고령의 개진에서 만나 산수를 유람한 글. 끝에 미수 허목의 발어(跋語)가 첨부되어 있음.

간송 조임도의 선유(船遊) 관련 작품 목록은 위와 같다. 정구·장현광 및 그 문인들은 낙강 연안에 구축되어 있었던 강거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선유를 즐겼다. 함안의 세족이었던 간송 집안의 강거 기반과 전통은 조임도에게 이어져 그의 선유 취미를 더욱 강화시켰다.¹¹⁾

간송이 아버지의 권유로 23세 때 급하게 참석했던 용화산 선유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유는 간송의 나이 4·50세 때에 이루어졌다. 간송은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은거 생활을 하면서 지냈지만, 지속적으로 교유 인물들과 선유 관련 활동을 진행하면서 안목을 확장하고 주변인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다. 간송의 선유 관련 작품은 그의 교유관을 비롯하여, 교유 문학의 여러 다양한 특징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도표3] 주요 교유 인물과 관련 작품

11) 김학수(2010), 앞의 논문, 86쪽.

주요 교유 인물	주요 교유시	선유 관련 작품
박도원: 장현광 문인 (朴道元, 1593~1648)	권2 《蔚津舟中示同行二友》	《내내선유서기후발 (奈內船遊序記後跋)》 《심현록(尋賢錄)》
박진영: 정구 문인 (의병장) (朴震英, 1569~1641)	권1 《聽朴通判震英彈琴甲寅》 《次許士述韻呈朴平山》	
신지제: 정구 문인 (申之悌, 1562~1624)	권1 《昌原府呈主人梧峯丈甲寅秋》 속집 권1 《雩浦餞梧峯丈歸園》	
이도보: 정구 문인 (의병장) (李道輔, 1587~1651)	속집 권1 《聞李益之道輔除官赴洛》	《경양대하선유기 (景釀臺下船遊記)》
임진부: 이홀 문인 (林眞怙: 1586~1657)	권1 《次林樂翁眞怙南字》 권2 《林樂翁除官赴洛乙亥冬》 《和林樂翁眞怙丙寅》 《以詩謝林樂翁書》	《과중록(過從錄)》
장문익: 정구·장현광 문인 (의병장) (蔣文益, 1596~1652)	권1 《次蔣處士文益示韻》 권2 《月夜懷蔣明輔》	
장현광: 정구 문인 (張顯光, 1554~1637)	권1 《拜旅軒先生于遠懷堂》	《용화산하동범록후서 (龍華山下同泛錄後序)》 《심현록(尋賢錄)》
조영문: 정구·장현광 문인 (趙英汶, 1588~1653)	권1 《寄贈場巖主人》 권2 《贈場巖主人甲寅春》	《내내선유서기후발 (奈內船遊序記後跋)》
정은: 정구 문인 (鄭蘊, 1569~1641)	권2 《鄭桐溪謫耽羅島》 《聞鄭桐溪昇疾還山》	
한몽삼: 정구·장현광 문인 (의병장) (韓夢參, 1589~1662)	권2 《靑松寺遇韓鈞隱》	《내내선유서기후발 (奈內船遊序記後跋)》 《심현록(尋賢錄)》
허목: 정구 문인 (許穆, 1595~1682)	권1 《寄贈許熙和穆》	《개진기회록(開津期會錄) 》 [附許熙和跋語]

간송이 교유한 인물은 100여 명이 넘지만,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간송은 여현 장현광을 정은, 정경세와 함께 그 당시 유림의 영수요, 조정의 으뜸 되는 원로로 존경하였다. 간송은 정은, 신지제 등 당시 강우지역(江右地域)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선배로 모시고 따랐다. 신지제

는 간송의 종자형(從姊兄)으로서 간송이 강좌지역(江左地域)의 인물들과 교류하는 데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¹²⁾

그리고, 간송은 박진영, 이도보, 임진부, 허목 등과는 벗으로서 서로 학문을 강론하였다. 특히, 박진영, 이도보, 장문의, 한몽삼 등은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 때 의병장 출신이기도 하였다. 간송도 정묘호란 때 향인(鄉人)이 그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신병(身病)으로 참여하지 못한 전력이었다.¹³⁾ 간송은 특정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인물과 두루 사귀었으며, 평생동안 이들과 개인적인 교유나, 선유(船遊) 등의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 간송 조임도의 교유관

간송이 저술한 선유록(船遊錄)은 그가 교유 인물들과 즐겼던 뱃놀이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의 교유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간송이 45세(1629년) 때 지은 <과종록(過從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글의 서두에서는 임진부(林眞怱)와 이준(李浚)이 간송 조임도의 처소로 찾아온 정황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간송은 이들과 함께 경양대(景釀臺)와 우포(霧浦)를 거쳐, 광재우 선생께서 노년을 보낸 곳인 망우당을 찾아갔다. 나중에 합석한 6명의 사우(士友)들과 이들은 함께 평사냥을 하고 시를 주고받으며 노닐었는데, 간송은 임진부와 이준의 인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전략) 임군(林君)은 곧 첩모당(瞻慕堂) 선생의 손자로 가학의 연원은 이미

12) 허권수(2001), 앞의 논문, 362쪽.

13) 『間松集』 年譜 및 解題 참조

유래가 있고, 타고난 품성의 아름다움 및 식견과 도량의 큼은 또 동년배들이 미칠 바가 아니며, 침중하고 단아하며 돈후하고 장중하여 기백이 큰 장자(長者)의 기풍이 있었다. 내가 늦게 태어나 비록 노선생의 문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매번 임군을 만날 때면 함장(函丈)의 곁에 있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심취하게 하는 것이 마치 맛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나는 임군에 대해 하루 아침 한가하게 노닐면서 좋아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이노천(李老泉)은 순후하고 근신하며 자질이 빼어났고, 선을 행하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 5일 동안 집에 머무르며 주인과 손님이 매우 즐거웠는데, 나의 비루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내가 혼매하고 게으른 점을 고쳐주었다. 간혹 경사(經史)를 담론하고 의리를 강구하였는데, 남의 장단점과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고, 부귀를 부러워하고 빈천을 싫어하는 생각은 전혀 말과 안색에 드러내지 않았다. 이처럼 훌륭한 벗이 있으니, 어찌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후략)¹⁴⁾

임진부(林眞怱)와 이준(李浚)은 모두 간송의 장인(丈人)인 이홀(李屹)의 문인이기도 하다. 특히, 간송은 임진부를 대상으로 한 많은 작품을 남겨서, 이들의 각별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간송은 임진부의 식견과 도량을 높이 평가하며, 임진부의 부친인 침모당(瞻慕堂) 임운(林芸)을 실제로 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노천 이준(李浚)은 바른 언사와 태도로 간송의 비루함과 나태함을 깨우쳐주는 유익한 벗으로 평가하였다. 간송은 교유 인물들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

14) 『潤松別集』 권1 〈過從錄〉, “(前略)林君卽瞻慕先生之孫也 家學淵源既有所自而天品之好 識量之大 又非流輩所及 沈雅厚重 休休有長者風 余生也晚 雖未及老先生之門 而每遇君 如在函丈之側 令人心醉 若飲醇酎 則僕之於林君 非燕遊一朝之好也 老泉醇謹質勝 有爲善之基 留家五日 主客樂甚 消我鄙萌 起我昏惰 或談論經史 講究義理 凡人之長短 時政得失 絕不掛口 歆羨富貴。厭薄貧賤底意態。了不形于言色。有友如此。其得不謂之益者歟(後略).”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과 번역본 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www.itkc.or.kr/main.do>)를 활용하였음. 이하 문집명과 권수만 표기)

사(謙辭)로 드러내었다.

한편, <과종록>의 후반부에서는 간송의 교유관과 글을 서술한 취지를 제시하였다. 간송은 공자(孔子)와 증자(曾子)의 교유관을 제시하면서 벗과 금슬(琴瑟)과 서책 중에서 벗의 유익함을 강조하였다. 간송은 편벽되고 경박한 본인의 단점을 벗의 유익함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인접해 있는 두 못이 서로 물을 윤택하게 하듯이, 벗이 서로 도와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벗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잠시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다 떠난 벗들에 대한 그리움을 기록하고자 이 글을 작성했음을 밝혔다.¹⁵⁾

또한, 간송이 59세(1643) 때에 저술한 <개진기회록(開津期會錄)>에서도 교유(交遊)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 글에서 간송은 정구(鄭逵)의 문인인 등암(藤庵) 배상룡(裵尙龍, 1574~1655)과 고양(高陽)의 개진보(開津步)에서 만나기로 한 오래된 약속을 지켰다고 하며, “작년에 모임을 갖기로 약속한 말이 우연한 가운데서 나왔으나 끝내 약속을 지켜, 가벼이 승낙하여 신의를 저버린 후회가 없고, 오래된 약속을 잊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으니, 세도가 쇠한 세상에서 이런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등암(藤庵) 배상룡에 대해서는 “한강 정 선생의 만년의 고제로 그의 큰 재목과 뛰어난 국량은 세상에서 큰일을 하기에 충분하였으나, 불행히도 장년(壯年)이 되어 왕부(王褒)의 이품을 품고서 과거 공부를 폐하고 두문불출하며 일생을 마치려고 하니, 그를 아는 사람들이 애석해 하였다. 또한, 등암은 한강 선생의 문고를 편찬하고 선생의 사당을 세웠으며, 무릇 선생의 사업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매년 공을 만날 때마다 선생의 곁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평가하였다. 특

15) 『潤松別集』 권1 <過從錄> 참조

히, 등암공은 간송에게 나이를 초월한 망년지교(忘年之交)를 허락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 글의 말미에서 간송은 등암과의 교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략) 이별할 적에 등암이 나에게 글을 지어 이번 일을 기록하기를 부탁하였고, 또 여름 4월에 편지를 보내어 면려하였다. 내가 비록 글을 잘 짓지는 못하나 어찌 감히 명을 받들지 않아 근후한 소망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우리들은 나이가 모두 6, 70세이고, 길도 200리 떨어져 있어 만나는 어려움이 이 이후로는 더욱 힘들 것이다. 만약 반드시 서로 어울려 따라다니며 담소를 함께 하는 것으로 친밀하고 정이 두터워진다고 한다면, 사림을 논하는 도가 알지 않겠는가. 옛사람은 백세 뒤에도 서로 감응한 것이 있고,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 교유가 있었으니, 이는 마음이 기약과 기개가 서로 미더운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조자건(曹子建)의 시에 “은혜와 사랑이 진실로 어긋나지 않으면, 멀리 있어도 매일 친함을 나눌 수 있네. 어찌 반드시 함께 생활을 하여, 그런 뒤 은근한 정분을 펼치겠는가? [恩愛苟不虧在遠分日親何必同衾裯然後展慙慙]”라고 하였으니, 어찌 이 시로써 서로 면려하지 않겠는가.¹⁶⁾

간송과 등암은 1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추구하는 지향점이 유사하였기에 나이를 초월한 교유가 가능하였다. 비록 두 사람이 처한 물리적 거리가 멀고, 나이가 들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객관적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유가 가능한 사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16) 『潤松別集』 권1 〈開津期會錄〉, “臨別 藤庵屬余作文以記事 又於夏四月 馳書勉之 吾雖不文 其敢不承 以孤勤厚之望乎 抑又有一說焉 吾儕年皆六七旬 路隔二百里 會合之難 此後益甚 若必以相追逐同笑語爲親厚也 則論交之道 顧不淺淺乎哉 古之人有曠百世而相感者焉 有隔千里而神交者焉 是在心期與氣槩交孚之如何耳 曹子建有詩曰 恩愛苟不虧 在遠分日親 何必同衾裯 然後展慙慙 盍以此相助焉.”

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교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간송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사람인 조식(曹植, 192~232)의 〈증백마왕표(贈白馬王彪)〉의 내용을 인용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배상룡과 조임도는 각기 당시 한강·여헌학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다. 조임도가 〈개진기회록〉에서 배상룡을 정구의 ‘만년고제(晩年高弟)’로 평가한 것도 결코 치사가 아니었고, 조임도는 ‘여문십현(旅門十賢)’의 한 사람으로서 여헌학과 내에서 그 위상이 확고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허목과의 친분도 매우 두터웠다.¹⁷⁾

이상과 같이 간송은 특정한 학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지향점이 유사한 인물들과 교유하였다. 교유 인물들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인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가치 있는 교유와 선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유 인물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했던 문학 활동과 선유(船遊)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3.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 나타난 인식 양상

1) 존현(尊賢)과 시대 인식

간송이 생존했던 16C 후반~17C 중반 시기는 임진왜란 후 기존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에도 정쟁(政爭)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인조 반정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이후 정묘, 병자호란까지 거치는 환란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간송은 30세에 동당시(東堂試)에 합격하고, 31세 때에 모친의 권유로 시험 공부를 하여 향시에 합격하기는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세상의 여론이

17) 김학수(2010), 앞의 논문, 89쪽.

크게 허물어지자, 세상을 벗어나 초야에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과 왕래를 끊었다.¹⁸⁾ 다음 작품은 간송이 은거를 결심하기 직전에 지은 것으로, 당대 시대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世道嗟如許 세상인심이 이와 같음을 탄식하노니
 吾儒事亦休 우리 유학도 일이 이미 끝났도다
 交遊星落落 교유하던 이들은 별처럼 스러져가고
 名利夢悠悠 명리는 꿈처럼 아득하도다
 痛飲傷眞性 술을 흠뻑 마셔 참된 본성을 해치고
 狂歌寫隱憂 미친 듯 노래 불러 숨긴 근심을 토로하네
 今來滄海上 이제 푸른 바닷가로 와서
 慷慨欲乘桴 강개하여 뗏목을 타러 하네¹⁹⁾

위 작품은 간송이 30세(1614년) 때 창원부에서 주인 오봉 어른께 드린 것이다. 오봉 신지제(申之悌, 1562~1624)는 조임도의 종자형(從弟兄)으로, 당시 창원 부사로 있었다. 이 작품에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정황과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수련~합련에서는 당대의 유학이 제 구실을 해내지 못 하고, 세상 인심이 험악해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예전에 교유하던 이들도 힘을 잃고 흩어져버린 것에 대한 개탄이 나타난다. ‘성낙락(星落落)’과 ‘몽유유(夢悠悠)’라는 시어로 허망하고 아득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경련~미련에서는 간송이 이러한 현실에 고뇌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통음(痛飲)’과 ‘광가(狂歌)’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두보의 시작품 〈증이백(贈李白)〉을 점화(點化)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구에서는 공자가 천하가 어지러움을 탄식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리라. [道不行, 乘桴浮于海.]”라는 『논어』의 〈공야장(公冶長)〉의 내

18) 『間松集』 年譜 乙卯年 참조

19) 『間松集』 권1 〈昌原府呈主人梧峯丈甲寅秋〉

용을 인용하고 있다.²⁰⁾ 이는 도(道)가 행해지거나 도를 행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고 싶다는 뜻의 공자의 탄식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간송이 살았던 당대에도 진정한 도가 행해지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 인식은 대내외적으로 혼란해진 정국에 더욱 심화되는데,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雲林昨夜鶴書飛 은거한 곳에 어젯밤 교서가 날아들더니
 水北山人洛下歸 강북에 은거한 사람이 한양으로 돌아가네
 却喜朝家收野逸 조정에서 은거한 사람을 임용하는 걸 기뻐하지만
 鬢愁香土染荷衣 도리어 궁궐에서 연잎 옷을 더럽히는 걸 근심하네
 腥羶滿國山河異 비란내가 나라에 가득하니 산하가 다르고
 宮闕蒙塵物色非 임금의 도망가니 형편이 아니네
 世事卽今堪痛哭 세상사는 지금 통곡할 만하니
 送君西望更歎歎 그대 보내며 서쪽을 바라보고 더욱 흐느끼네²¹⁾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6년에 익지 이도보가 제릉 참봉(齊陵參奉)에 제수되어 한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것이다. 이도보(李道輔, 1587~1651)는 정구(鄭逋)의 문인(門人)으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정묘호란 때 창의(倡義)한 구국지사(救國志士)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²²⁾ 수련~함련에서는 은거하던 이도보(李道輔)가 조정에 부름을 받게 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향토(香土)’는 궁정(宮廷) 안의 흙을 미화하여 이른 말이고, 연잎 옷은 은거한 사람이 입는 옷이다. 조정에서 벼슬을 내려 은거한 사람을 속세에 물들게 한다는 뜻이다.

20) 『論語』 〈公治長〉

21) 『聞松續集』 권1 〈聞李益之道輔除官赴洛〉

22)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DB〉 (<http://people.aks.ac.kr>) 참조

경련~미련에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정국을 오랑캐의 비린내로 가득 찬 세상으로 표현하였고,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간송은 이도보가 어지러운 정국 속에 출사하게 된 것을 깊이 우려하며 통탄하고 있다.

실제로 간송은 1636년 12월에 남한산성이 오랑캐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은 바 있다. “씩은 선비가 평소에 군사(軍事)를 논의하지 않다가, 오늘처럼 난리가 닥치니 그저 뼈저리게 놀라기만 하네. 달무리처럼 포위된 외로운 성에서는 소식도 끊어졌는데, 북극성 돌아보며 부질없이 눈물만 뿌리네.”²³⁾ 왕이 피신한 남한산성이 오랑캐에게 포위 당한 것을 비판하며, 당대 무기력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왕의 안위를 걱정하였다.

간송은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을 추종하였으며, 현인(賢人)들의 정신을 잇고자 하였다. 다음 작품에서도 간송의 교유 인물에 대한 태도와 시대 인식이 드러난다.

(가) 萬古綱常懸日月	만고강상이 해와 달처럼 밝아졌으니
百年身世等鴻毛	백년 인생쯤이야 새털처럼 가볍도다
可憐一片耽羅島	가련하다 한 점 탐라도
鎖卻貞臣氣節高	간혀 있어도 곧은 신하의 기절은 높도다 ²⁴⁾

(나) 風雨孤城萬死餘	비바람 부는 외로운 성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
昇歸病骨故山隅	병든 몸 고향으로 들려 돌아왔다네
一邊好惡何須算	한쪽의 호오를 어찌 반드시 헤아리랴

23) 『潤松集』 年譜 丙子年, “十二月 聞南漢受圍 胡人大舉入寇 上幸南漢山城 胡人圍逼 先生慨然吟一絕云 腐儒平昔不談兵 臨亂如今但骨驚 月暈孤城消息斷 北辰回首涕空橫.”

24) 『潤松集』 권2 〈鄭桐溪謫耽羅島〉

千古綱常賴以扶 천고의 강상이 그에 의지하여 부지되었는데
 貫日精忠夷夏聞 해를 꿰뚫을 순수한 충정은 천하에 알려지고
 凌霜直節鬼神孚 서리를 대항할 곧은 절개는 귀신이 믿었네
 當時此義誰相許 당시의 이 의리 누가 인정했는가
 獨有清陰是丈夫 유독 청음이 있었으니 이가 장부이네²⁵⁾

(가)는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이 탐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작품이다. 정온은 1614년(광해군6) 부사직(副司直)으로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이 인륜에 어긋남을 상소하여 그 가해자인 강화 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을 참수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10년 간 제주도 대정(大靜)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²⁶⁾

1~2구에서 간송은 오래도록 밝은 ‘만고강상(萬古綱常)’과 새털처럼 가벼운 ‘백년신세(百年身世)’를 대조하였다. 3~4구에서는 비록 정온이 정쟁에 휘말려 탐라도에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그 기개와 절조는 높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정온이 병든 몸으로 고향으로 실려 갔다는 말을 듣고서 간송이 지은 작품이다. 수련~함련에서는 정온이 외로운 성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간 정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상의 시시비비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정온이 목숨을 걸고 떳떳한 의리를 지켰음을 확인하였다.

경련~미련에서는 정온의 곧은 절개와 의리를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이로 간송 자신뿐만 아니라, 청음 김상헌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온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이조 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특히, 강화도가 함락되고 항복이 결정되자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수치를 참을 수 없다고 하며 칼로 자결했으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25) 『間松集』 권2 〈聞鄭桐溪鼻疾還山〉

26) 『桐溪集』 年譜 참조

뒤 관직을 단념하고 덕유산에 들어가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²⁷⁾ 이러한 정온의 인생은 목숨을 걸고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헌과도 유사한 점이 많았고, 간송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간송은 선유(船遊) 관련 작품에서도 현인들의 자취를 살피고, 그들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간송의 존현(尊賢) 의식을 <심현록(尋賢錄)>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 글은 간송이 42세(1626년) 음력 7월에 한몽삼(韓夢參, 1589~1662), 박도원(朴道元, 1593~1648) 등과 함께 내내(奈內) 강사(江舍)에서부터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현풍의 도동서원, 인동의 오산서원(吳山書院)을 둘러보고, 인동에서 여현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창녕을 거쳐 돌아온 기행문이다. 7월 12일~26일까지의 14일 동안의 여정 중에 주요한 일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일 배가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울진(蔚津)에 이르자, 박군이 기약한 대로 나루터에 달려 나와 있었다. 놀라고 기뻐하며 서로 맞이하면서 배 가운데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이날 밤 강에 뜬 달이 참으로 밝았는데, 옅은 구름조차 모두 걷혀 은하수는 빛나며 돌고,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와 물결은 일지 않았다. 뱃전을 두드리며 길게 읊조리다가 맑은 흥취를 금할 수 없어 이에 절구 한 수를 입으로 읊었다.

夜靜江天月滿舟 고요한 밤 강 위에서 달빛은 배에 가득하고
 同來三侶摠仙儔 함께 가는 세 벗은 모두가 신선의 무리이네
 此行不是閒遊行 이번 걸음 한가로이 실컷 놀러는 것이 아니라
 直溯眞源向上流 진원으로 바로 거슬러 상류로 향하는 것이라네²⁸⁾

27) 『桐溪集』 年譜 참조

28) 『潤松別集』 권1 <尋賢錄>

위 내용은 13일에 조은 한몽삼, 처사 박도원과 함께 달밤에 배를 타고 느낀 흥취를 제시한 것이다. 간송이 먼저 읊은 칠언절구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고요한 달밤에 벗들과 어울린 심정을 표현하였고, 후반부에서는 학문의 '진원(眞源)'을 탐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성리학에서 원두(源頭)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원두는 물의 발원지로, 성리학자들은 원두를 통해 심신 수양을 떠올렸다. 원두가 맑아야 흘러가는 물이 맑듯, 인간의 선한 본성이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²⁹⁾

이후 간송은 17일 새벽에 장탄(獐灘)을 지날 때에도 유사한 체험과 감흥을 기록하였다. 강물의 흐름이 사납고 급해 한 치를 나아가면 한 자를 물러나곤 하여 노 젓는 힘을 조금 늦추면 앞의 노력이 모두 없어졌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분주히 수고하며 땀을 흘렸다. 내가 갑자기 마음에서 깨달아 말하기를 “고시(古詩)에 이른바 ‘학문하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³⁰⁾ 이렇듯이 간송은 학문을 하는 과정은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파악하였다.

16일에는 김굉필과 정구를 배향한 도동서원(道東書院)을 방문한 후에, 22일에는 길재를 배향한 오산서원(吳山書院)에 당도하였다.

(전략) 22일 이른 새벽에 멀리 약목현(若木縣)을 바라보니 겨우 10리쯤에 있었다. 비로소 배를 정박하고 땅에 내려 친구를 방문해 안장 갖춘 말을 빌렸다. 저녁에 오산서원(吳山書院)에서 잤다. (중략) 다음 날 맑은 새벽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서 사당 아래에서 참배한 뒤 재계하는 방에 물러나 앉아 심원록(尋院錄)에 성명을 기록하였는데, 도동서원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또 《오산지(吳山志)》를 구해 보고 나서, 지주중류비(砥柱中流碑) 아

29) 김소연(2020), 앞의 논문, 121쪽.

30) 『潤松別集』 권1 〈尋賢錄〉

래로 걸어 나가 돌에 새겨진 큰 네 글자를 어루만지고 비에 새겨진 서문과 명문(銘文)을 읽었는데, 길야은(吉冶隱)의 풍절은 높았고, 양청천(楊晴川)의 필획은 기이하였고, 유서애(柳西厓)의 문장은 훌륭하였다. (중략)

대저 배가 출발하여 이틀 되던 날 울진에서 박군을 만났고, 나흘 되던 날 도동사(道東祠)를 참배하였고, 아흐레 되던 날 오산사(吳山祠)를 참배하였고, 열흘 되는 날 인선-인동(仁同) 읍내의 동네 이름이다.-에서 선생을 배알하였다. 전현(前賢)에 대해서는 남긴 법도를 흠모하여 그 옛일을 상상하였고, 선생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듣고 알아 그 덕량을 우러러 보았으니, 누가 다투어 삼가고 두려워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학업을 닦으려 하지 않았겠는가. 단지 집으로 돌아간 뒤 구습에 얽매어 마음속이 꼭 막히고 혼미하고 흐트러져 갈팡질팡 갈 곳을 몰라 사상채(謝上蔡)의 오두력거(烏頭力去)의 탄식이 있을까 두려우니, 이것이 우리들의 훗날 근심이다.(후략)³¹⁾

지주중류비(砥柱中流碑)는 1587년(선조 20)에 인동현감 유운룡(柳雲龍)이 고려말의 충신이며,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그 묘역을 수리하고 주변에 사당과 서원을 창건하고 그 앞에 세운 비석이다. 비석 표면에는 중국의 명필 양청천(楊晴川)의 글씨인 ‘지주중류(砥柱中流)’ 네 글자를 새겼고, 뒤편에는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이 ‘지주중류’의 뜻과 그것이 후학들에게 주는 교훈의 글이 새겨져 있다. ‘지주’는 중국의 황하(黃河) 중류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31) 『潤松別集』 권1 〈尋賢錄〉, “(前略)廿二日早晨 遙望若木僅十里許 始泊舟下陸 訪知舊借鞍馬 夕寢于吳山書院 臨發 進士李丈衍炊飯餉之 李公秀彥置酒邀之 適遇申君汝嘉 張君經叔 竝轡而行 汝嘉書院有司也 經叔先生嗣子也 翌日清晨 盥櫛整衣冠 謁于祠下 退坐齋房 記姓名于尋院錄 一如道東之爲 又求吳山志覽畢 步出砥柱中流碑下 摩挲石刻四大字 讀碑陰序與歌 吉冶隱之風節高矣 楊晴川之筆畫奇矣 柳西厓之文章偉矣 (中略) 大抵舟行二日而會朴君于蔚津 四日而謁道東祠 九日而謁吳山祠 十日而拜先生於仁善 仁同邑內坊名於前賢則歎慕其遺範 想像其故事 於先生則聽聞其嘉言 瞻仰其德宇 孰不欲爭自惕厲 省躬修業哉 但恐歸家之後舊習纏繞 心地茅塞 昏昧放倒 質質佞佞 謝上蔡烏頭力去之歎 此吾輩他日之憂也(後略).”

석산(石山)으로, 탁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을 말하는 것으로, 지주산처럼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절개를 지킨 길재 선생을 가리킨 것이다.³²⁾ 간송은 이 비석을 살펴보며, 길재의 절개와 양청친의 글씨, 유성룡의 문장을 모두 높이 평가하였다.

그 후의 일정에서는 도동사(道東祠)와 오산사(吳山祠)를 참배하였고, 열흘 되는 날에는 인선에서 여헌 장현광 선생을 배알하였다. 간송은 전현(前賢)의 자취를 통해서 그들이 남긴 법도를 흠모하였고, 현재 스승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는 자신을 성찰하고 학업을 닦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현실에 복귀한 뒤에 현인과 스승의 가르침의 효력이 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사상채(謝上蔡)의 오두력거(烏頭力去)의 탄식’의 고사를 인용하여 강조하였다.

간송은 30여 년 동안 여헌 장현광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일상의 구체적 인 실천을 중시했던 간송의 사상은 여헌의 학문적 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³³⁾ 이상과 같이 간송은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 매몰되지 않고, 교유 인물들과의 지속적인 교유와 선유(船遊) 활동 등을 통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에 대한 존현(尊賢) 정신을 고취하였다.

2) 풍류(風流)와 처사(處士) 인식

간송 조임도의 한시에는 자연 속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작품이 많은데, 이는 일생 동안 출사(出仕)하지 않고 처사(處士)로 살았던 그의 생애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자연의 이치와 삶의 이치가 유사하기에 자연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은 유자(儒子)로서의 자세가 드러난다. 자연 속에서 자신과 유사한 삶을 영위한 이들과 교유하면서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http://encykorea.aks.ac.kr>) 참조

33) 김우형(2007), 앞의 논문, 51쪽.

남긴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人世紛紛是與非	인간세상은 시비로 분분한데
超然君獨脫塵機	그대 홀로 초연히 세속에 대한 생각 벗어났네
月明秋水鎔金躍	달 밝은 가을 물에 누른 물고기 튀고
花落春湖錦浪肥	꽃 떨어진 봄 호수에 비단 물결 넘치네
盡日觀書開竹戶	온종일 책을 보며 사립문 열어두고
有時垂釣坐苔磯	때로 낚시대 드리우며 이끼 낀 물가에 앉아 있네
一江鷗鷺皆知己	온 강의 갈매기와 해오라기 모두 마음 통하는 친구이니
何恨門前外客稀	문 앞에 손님 적은 것을 어찌 한스러워하라 ³⁴⁾

위 시는 간송이 장암주인(場巖主人) 조영문(趙英汶)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간송은 조영문과 평생 친밀하게 지냈으며, 그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많이 지었다. 간송은 〈내내선유서〉와 〈내내선유기〉에 대한 후발(後跋)에서 조영문을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로는 조군(趙君)만 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³⁵⁾

시작품의 수련에서는 세속의 어지러운 여론과는 상관없이 담담히 지내는 조영문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함련에서는 ‘추수(秋水)’ ‘춘호(春湖)’라는 계절적 공간을 대비시키고, ‘용금(鎔金)’과 ‘금랑(錦浪)’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조영문이 조용히 독서하고 낚시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처사적(處士的)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물새들과 벗삼아 지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아쉬움이 없으리라 표현하였다.

다른 교유시에서도 간송의 풍류(風流) 인식과 처사적 면모는 빈번하게

34) 『間松集』 권2 〈贈場巖主人甲寅春〉

35) 『間松集』 권4 〈奈內船遊序記後跋〉

나타난다. 다음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高臺大野又長流 높은 대와 넓은 들판에 또 긴 강
 風月煙霞別一區 맑은 바람과 맑은 달, 연기와 안개는 딴 세상이네
 佳句覓來忘世慮 좋은 시구 찾으면서 세상 근심 잊고
 濁醪開處遣閒愁 탁주동이 연 곳에서 쓸데없는 근심 없애네
 胸襟廓落人猶鶴 가슴이 트이니 사람이 학과 같고
 地界清涼夏亦秋 지역이 시원하니 여름에도 가을 같네
 況與親朋連日話 더군다나 친한 벗과 여러 날 얘기하니
 人間此外更何求 이 밖에 인간세상에서 다시 무엇을 구할까³⁶⁾

이 작품은 검계대(劍溪臺) 위에서 진사 이회일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이회일(李會一, 1582~1618)은 이흘(李屹)의 아들이자, 간송 조임도의 처남이다. 간송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검계대(劍溪臺) 위에서 주변을 조망하며 지인들과 교유한 감회를 시로 표현하였다. 수련에서는 높은 대에서 아래로 는 들판과 강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맑은 달을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좋은 시구절을 찾으면서 ‘망세려(忘世慮)’하고, 음주를 즐기며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있다. 그리고, 경련~미련에서는 자연과 물아일체된 경치를 체화하며, 지우들과 함께 어울리며 누리는 흥취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상(詩想)을 표현하였다. 이는 침지 이도일(李道一, 1581~1667)의 강가 별장에 쓴 시작품이다.

容膝軒中老 용슬현의 늙은이
 江湖晚卜莊 늘그막에 물가에 집을 지었네

36) 『潤松集』 권2 〈劍溪臺上次李上舍會一韻〉

漁樵爲産業 고기 잡고 나무 하는 것을 일로 삼고
 花月任行藏 꽃과 달을 즐기며 살았다네
 夜靜琴聲遠 밤이 고요하니 거문고 소리 멀리 퍼지고
 秋深醉興長 가을이 깊으니 취흥이 오래 가는구나
 自今忘世事 지금부터 세상사 잊어버리고
 敲枕夢羲皇 베개에 기대 회황을 꿈꾸리라³⁷⁾

이도일(李道一)은 칠원 현감에 제수되자 사직소를 올렸는데, 이로 인해 특별히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용슬헌(容膝軒)은 1641년에 이도일이 임해진(臨海津) 가에 지은 정사(亭舍)이다. 수련~함련에서는 이도일이 강가에 별장을 짓고,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며 지내는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평온하고 소탈한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경련에서는 고요한 가을밤에 멀리 퍼지는 거문고 소리와 흥취를 감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미련에서는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았던 복희씨(伏羲氏) 시대를 연상하며, 은자들이 자칭 회황상인(羲皇上人)이라 하였듯이 세상일에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세상사를 잊고 회황을 꿈꾸는 바람은 조임도와 이도일이 유사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간송의 삶은 현실공간의 불가함으로 인한 피세적(避世的) 은둔이나 염세적(厭世的) 은둔이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의 가(可)와 불가(不可)에 무관한 초속적(超俗的) 은둔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³⁸⁾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는 간송이 교유 인물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도피로 인한 은둔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신과 지우(知友)들의 삶을 응시하고 있다.

37) 『間松集』 권1 〈題李僉知道一江墅〉

38) 오용원(2010), 앞의 논문, 419쪽.

이러한 간송의 인식은 선유(船遊) 관련 작품에서 자연을 완상하는 태도와도 일정하게 연계되어 나타난다. 뱃놀이를 하면서 목격한 자연의 경물이나 주변 환경은 일상의 공간인 동시에 흥취를 돋우는 매개체나 경이감을 주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에 해당한다.

(가) (전략) 잠시 후 소매를 나란히 하고서 이른 객이 6명이었는데, 배수보와 배입보(裊立甫), 신자진(辛子眞)과 신자중(辛子重), 신여달(辛汝達), 여과언(呂果彦)이었다. 사는 곳이 겨우 7, 8리 되는 곳의 도천(道泉) 마을인데, 이들은 모두 강호 사이를 서로 왕래하는 사우(士友)이다. 그리고 신자진은 망우당 곽 선생의 외손이고 나의 처형인 이상사(李上舍)의 사위이다. 안부를 묻고 앉은 뒤 오래되지 않아 여섯 명이 함께 말하며 청하기를 “정자 북쪽에 단(壇)이 있는데, 지세가 높고 평평하여 먼 곳까지 관망할 수 있고, 올라가서 소요하며 오늘 밤을 길이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임군이 “좋다.”라고 하여 곧바로 자리 옮길 것을 명하여 단에 올라갔다. 앉기도 하고 걸기도 하였는데, 소나무 그늘과 대나무 그림자와 살구꽃이 눈처럼 날리는 모습과 사방의 구름 걸친 산이 모두 눈 안에 들어와 매우 상쾌하였다. 이에 여섯 명이 서로 이어가며 술을 돌렸는데, 술상은 초라하였지만 정의(情誼)는 화락하여 그 즐거움이 거의 속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후략)³⁹⁾

(나) 나는 여러 선비들과 함께 문밖을 걸어 나와 산수를 마음껏 구경하였는데, 사방의 산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그림을 펼쳐 놓은 듯하였다. 또 두 시내가 양쪽에서 마주하고 흐르는데 서로의 거리가 수백 보이고, 물줄기

39) 『潤松別集』 권1 〈過從錄〉, “(前略)食頃有客聯袂而至者六人 裊受甫立甫 辛子眞子重辛汝達呂果彦也 所居僅七八里 里名道泉 是皆江湖間過從之士友 而所謂子眞者 郭先生外孫 而吾妻兄李上舍女婿也 敘寒暄坐 未幾 六人同辭請曰 亭北有壇 地勢高平 觀望悠長 可登逍遙以永今夕 林君曰諾 卽命移席登壇 或坐或步 松陰竹影 杏花飄雪 四面雲山 盡入眼中 甚爽快也 於是六人相繼行酒 杯盤草草 情好款款 其樂殆非塵世有也(後略).”

의 크기는 묶은 부들을 겨우 흘러보낼 정도이지만 졸졸 콧물 흘러 대단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며, 앞산의 왼쪽 가에서 합류하여 몇 리 못가서 황산강(黃山江)으로 흘러 들어간다. 울산, 양산, 밀양의 못 골짜기의 물이 모두 위에서 만나 이곳에 이르러 물줄기가 커져 넓기가 끝이 없는데, 직살 끝 모양처럼 세 갈래로 갈라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죽도(竹島), 덕도(德島), 대장도(大場島) 등의 섬이 해구(海口)에 들쭉날쭉 우뚝 서 있고, -술밭처럼 서 있다고 하기도 한다.- 또 흙무더기와 꿩어린 구렁이 점점이 모래밭에 바둑알을 펼쳐 놓은 듯 별이 늘어선 듯 있는 것이 그 수가 일곱인데, 곧 앞에서 말한 삼차수(三叉水)와 칠점산(七點山)이 이것이다. 주산(主山)은 신어산(神魚山)이다. 속설에 산 정상에 예로부터 우물이 있었는데 두 마리의 봉어가 그 안에 살면서 기이한 사람이 이르면 나타나고 속된 객이 오면 숨었기 때문에 이같이 이름한 것이라고 전한다. (후략)⁴⁰⁾

(가)는 간송이 45세 때 지은 <과종록>의 일부이다. 간송 일행이 경양대와 망우정 일대를 돌아보는데, 배대유(裵大維, 1563~1632)의 조카들과 신시망(辛時望, 1606~1676) 집안 사람들이 유람에 동참하게 된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정자 북쪽에 있는 단(壇)에 올라 사방을 관망하고, 노년 정취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림자 속에 눈처럼 흩날리는 살구꽃의 모습이 봄날의 풍광을 더욱 운치 있게 조성하였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지우들과 함께한 술자리는 성대하지는 않지만, 그 즐거움은 세상을 잊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나)는 간송이 48세 때 김해 신산서원 원장을 맡아 춘향에 참제(參祭)하

40) 『潤松別集』 권1 <遊觀錄>, “(前略)余與諸儒步出門外 縱觀泉石 四山周遭 如展畫圖 又有雙澗夾流 相去數百步 水之大僅流東蒲 而潺湲汨瀾 盛早不渴 合於前山左邊 未數里入於黃江 蔚山梁山 密陽衆壑之水皆會於上 至此而大 浩汗無涯 岐而爲三 狀如義股 流入于海 竹島德島大場等島錯 一作鼎 峙海口 又有堆豚 斷壘點點 碁布星列於洲渚者其數有七 卽上所謂三義七點是已 主山曰神魚 諺傳山頂古有井泉 一雙鯽魚游泳其中 異人至則見 俗客來則隱 故名焉(後略).”

기 위해서, 사우들과 칠원 내내에서 배를 타고 김해까지 왕환(往還)한 기록인 <유관록>의 일부이다. 1635년 음력 3월 2일부터 13일까지의 여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하였는데, 위 인용문은 3월 7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삼차수(三叉水)와 칠점산(七點山) 주변의 풍광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주산(主山)이 신어산(神魚山)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속설(俗說)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우물 속에 있는 두 마리의 붕어가 기이한 사람이 이르면 나타나고, 속된 객이 오면 숨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탈속적이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산수를 즐기면서 지낸 지 오래된 간송 입장에서 유선(遊船)의 체험은 한정된 자연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기개를 펼치는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자신이 머무는 자연 공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발견하고, 풍류적인 흥취를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였다.

3) 지음(知音)과 연대(連帶) 의식

간송은 특정 학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래서 그의 교유시에는 서로의 진정을 이해하는 지음(知音) 인식과 교유 인물들과의 연대(連帶) 의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松風響蕭瑟	솔바람 소리 소슬하게 들리는 듯
石澗鳴鏗鏘	바위틈 시냇물 졸졸 흐르는 듯
誤疑坐林壑	숲속 골짜기에 앉은 양 착각에 빠져
不知琴在傍	거문고 옆에 있음을 알지 못하네
我愛朴通判	내가 박 통판을 아끼는 건
不與世奔忙	세상 어지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아서이지
所以古雅音	그래서 옛날의 아음을 연주하면

入耳皆峨洋 귀에 들어오는 것 모두 아양곡이라네⁴¹⁾

이 시는 간송이 조임도가 30세 때, 통판(通判) 박진영(朴震英, 1569~1641)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박진영은 정구의 문인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인물이기도 하다. 수련~합련에서는 박진영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가 솔바람 소리와 시냇물 소리로 착각할 만큼 청아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경련에서는 간송이 세상 어지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는 박진영의 면모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미련에서는 춘추시대(春秋時代)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와 관련된 아양곡(峨洋曲)을 용사(用事)하며, 간송과 박진영과의 ‘지음(知音)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백아가 연주한 곡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챈던 종자기처럼 간송도 박진영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다음 작품에서도 이러한 지음(知音) 의식이 나타난다.

論交在知心	친구를 사귀는 건 마음을 아는 데 달려 있으니
地無東西南	사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다네
千里卽咫尺	천 리가 지척이라
方寸兩相諳 ⁴	마음을 서로가 잘 안다네
聲氣自求應	소리와 기운은 절로 구하고 응하며
臭味同辛甘	지취(志趣)는 맵고 단 것을 같이 한다네
曰余生苦晚	날더러 불행히도 늦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與君先一年 ⁸	그래도 그대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났지

(중략)

訪我百里外 ³³	백 리 밖에서 나를 찾아와
扁舟泛春江	봄 강에 쪽배를 띄웠지
厚義豈敢忘	두터운 의리 어찌 감히 잊으랴

41) 『潤松集』 권1 〈聽朴通判震英彈琴甲寅〉

勝跡留軒窓 홀륭한 자취가 창가에 남았는데
 投詩慰寂寞 시를 지어 적막함을 위로하고
 歷數當世英³⁸ 당세의 영웅을 하나하나 세어보네

(중략)

歎君富才料⁴⁵ 그대의 재능과 생각이 풍부함에 감탄하거니
 千倉又萬困 천만 개의 곳간에 쌓아둔 듯하네
 但愧吹獎濫 다만 부끄러운 건 장려하는 말씀이 넘쳐
 謬及庸愚身 못난 저 자신에게 잘못 이르네
 庸愚賦命奇 못난 저는 본래 팔자가 기구하니
 百恨胸中填 온갖 회한이 가슴을 채우네
 況復衰病侵 더구나 또 노쇠와 질병이 덤벼드니
 僅得軀殼全⁵² 겨우 몸뚱이만 보전할 뿐이라네

(중략)

選勝雖信美⁵⁹ 좋은 경지 찾는 건 참으로 멋있지만
 浪遊莫聯翩 부질없는 유랑은 계속하지 마시게
 慇懃謝二友 은근히 두 벗에게 사례하노니
 血誠都在篇⁶² 진실한 마음이 모두 이 글 속에 있다오⁴²⁾

이 작품은 낙옹(樂翁) 임진부(林眞怱, 1586~1658)가 간송에게 준 시에 차운한 것으로, 총 62구에 달하는 오언고시(五言古詩) 작품이다. 임진부는 1612년(광해군4)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다시 과거를 보지 않고 평생 은거하며 지내서 간송 조임도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인물이다. 이들은 평생 교유하며 관련 작품을 남겼다.

1~4구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간송의 교유관이 제시되었다. 5~8구에서는 간송과 임진부가 한 살 차이 나는 지우로 서로의 마음과 행동이 잘 맞는

42) 『潤松集』 권1 〈次林樂翁眞怱南字〉

것을 표현하였다. 증략된 부분에서 간송은 임진부의 가학(家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의 풍모가 남다름을 칭송하였다.

33~38구에서는 임진부가 간송이 은거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온 일을 회상하고 있다. 같이 강에 쪽배를 띄우고, 봄날을 정취를 즐기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 일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간송은 임진부의 ‘후의(厚義)와 승적(勝跡)’을 잊지 않고, 시를 지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42~52구에서는 임진부가 간송에게 넘치도록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간송 자신이 노쇠하고 병들어서 그 조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상황을 제시하였다. 59~62구에서는 간송이 임진부에게 조언을 하며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좋은 경지를 찾는 것도 멋있지만, 계속 유랑을 하지는 말라고 당부한다. 진실한 정성은 외물(外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우와 주고받은 이 시작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간송은 49세(1633년) 때에 내내(柵內)에서 영산(靈山)의 용산(龍山) 마을로 이사하여, 용화산 기슭 낙동강 변에 세 칸짜리 작은 정자를 지었다. 가운데 칸은 망모암(望慕庵), 왼쪽은 사월루(沙月樓), 오른쪽은 와운헌(臥雲軒)이라 하였고, 앞의 대를 연어대(鳶魚臺), 바위를 노어암(鱸魚巖)이라 하고 모두 합쳐서 이름을 합강정사(合江精舍)라 하였다.⁴³⁾ 이곳은 주로 간송이 은거하며 학문을 연마하던 장소로 평소에는 합강정사에 드나드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때로는 그의 지인들이 합강정사를 방문하였다.⁴⁴⁾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이러한 모임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1수〉

荒涼草屋竹林間 황량한 초가가 대숲 사이에 있는데

43) 『間松集』 年譜 癸酉年 참조

44) 김소연(2020), 앞의 논문, 119쪽.

只有山僧許往還 오직 산승이 있어 왕래를 허락하네
 何幸群賢供勝會 어진 분들이 성대한 모임에 참여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一江風月未全閒 온 강의 바람과 달이 완전히 한가하진 않네

〈2수〉

哀絲急管助清歡 애절한 거문고 급박한 통소가 청아한 즐거움을 돕는데
 更上蘭舟弄月還 다시 작은 배에 올라 달을 감상하고 돌아오네
 此夜合江亭上會 이날 밤 합강정에서의 모임은
 人間他日再逢難 훗날 살아서 다시 만나긴 어려우리⁴⁵⁾

이 작품은 합강정에 모여 술 마시는 밤에 함께 노닐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다. 〈1수〉에서는 평소에 간송이 혼자 은거하며 지내면서 가끔 산승(山僧)과 왕래하는 정도에 그쳤던 공간에 많은 이들이 방문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어진 분들이 많이 모인 덕분에 ‘풍월(風月)’마저도 한가롭지 않게 느껴진다.

〈2수〉에서는 거문고와 통소 연주 소리가 성대한 모임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조성하며, 밤에 작은 배를 타고 달구경을 하는 여유로운 자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임은 흔히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날 간송을 방문했던 모든 이들을 훗날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울 만큼 귀한 모임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간송의 교유 인물과의 연대 의식은 시작품에서도 드러나지만, 선유 관련 작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선유(船遊)는 개인적 놀이기보다는 집단성을 추구하는 속성이 크다. 그것이 신분이나 직업이든, 나이든, 혈연이나 학연이든 어떤 공감대나 일체감을 바탕으로 놀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단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⁴⁶⁾

45) 『間松集』 권2 〈合江亭會飲夜示同遊諸賢二首〉

46) 김학수(2010), 앞의 논문, 47쪽.

간송이 저술한 선유 관련 기록에도 이러한 집단 의식과 연대 의식이 잘 드러난다. 교유한 인물들과의 친분, 유람의 계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은거 생활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인들과 교유하고 소통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 〈경양대 아래에서 뱃놀이 한 기문(記文)〉을 통해 그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겠다.

(전략) 승정 기원 무진년(1628, 44세) 4월에 상사(上舍) 이익지(李益之), 상사 유희보(兪會甫), 상사 양이정(楊以貞), 내사(內舍) 이이백(李而白)이 자체 몇 명을 데리고서 배를 마련하고 휘장을 설치하여 이 강위에서 술을 싣고 놀았다. 처음에는 용화산 아래에서 배를 띄워 경양대 앞으로 노를 저어 갔는데, 대개 이들은 수계(修契)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나를 강촌의 늪은이라 의리상 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초청하였다. 나도 감히 일이 있다고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거룻배를 저어 다가가니, 벗들이 흔쾌히 맞이하며 웃었다. 나를 맞이해 주어 배 안에 앉으니 사방에 앉은 사람들 모두 전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었고, 처음 만난 사람은 양 상사(楊上舍) 형제뿐이었다. 새로 만난 사람이나 전부터 알던 사람이나 함께 기뻐하며 술을 따라 신나게 마시다 보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이비연(李斐然) 군이 이 모임을 듣고 뒤따라와서 낙동강 지류에서 뒤늦게 합석했는데, 모두들 “믿음직한 선비다.”라고 하며 술을 들어 위로하였다. 그 때 내리던 비가 갓 개어 녹음이 한창 질었다. 물위에 떠서 뱃전을 두드리니 그 흥이 유연(悠然)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자 내가 잔을 들고 말하기를 “유람이 알맞기 위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어야 하니, 경치 좋은 곳, 아름다운 시절, 좋은 벗입니다. 지금 경치 좋은 경양대에서 청화절(淸和節)에 여러 분과 벗이 되니, 경치 좋은 곳을 얻었고 아름다운 시절을 얻었으며 훌륭한 벗을 얻은 것입니다. ‘네 가지 아름다움을 갖추고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했다.’라고 해도 좋으니, 오늘의 유람이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유 상사와 양 상사 두 사람은 당세의 문장가들의 중망을 받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온축한 것이 매우 풍부한데도 그 지향을 살펴보면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지와 이백은 화려하고 온아(溫雅)하며 훌쩍

속세를 떠날 의표를 가지고 있으니, 모두들 이 자리의 보배라고 말할 만합니다. 돌아보건대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여러 군자들의 뒤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어찌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후략)⁴⁷⁾

이 글은 간송이 44세(1628년) 음력 4월에 이도보(李道輔, 1587~1661), 유형길(兪亨吉, 1589~?), 양훤(楊畵, 1597~1650) 등이 자제 몇 명을 데리고 서 배를 마련하고 휘장을 설치하여 이 강 위에서 함께 노닐 기록이다. 원래 약속을 했던 지인들이나 새로 만난 사람들 모두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송은 유람의 세 가지 조건으로 ‘경치 좋은 곳, 이름다운 시절, 좋은 벗’을 들었고, 이날 모임이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리였음을 밝히고 있다. 당대의 문장가이자 인품이 훌륭한 이들과 동류지락을 느끼며 연대하는 간송의 모습에서 충만한 행복감을 엿볼 수 있다.

간송은 자신과 뜻이 통하는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주요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학문적인 강론 등을 진행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나갔다. 이러한 활동은 혼자 고립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당대 지식인들과 교감을 하며 연대해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47) 『潤松集』 권4 〈景釀臺下船遊記〉, “(前略)崇禎紀元戊辰首夏 李上舍益之 兪上舍會甫 楊上舍以貞 李內舍而白 率子弟若干人 具舟楫設帷帳 載酒遊于茲水之上 初泛於龍華山下 移棹于景釀臺前 蓋有所講修云 謂余江村老物 義不容遺 送人招之 余亦不敢以事免焉 檣小艇赴之 諸友欣然迎笑 引坐舟中 四座皆舊面而始相見者 楊上舍昆弟也 新舊交歡 酌酒酣暢 日已西矣 李君斐然而尾之 追及於江之澗 兪曰 信士也 舉之酒而慰焉 于時江雨新晴 綠陰方濃 扣舷中流 其興悠然 酒半 余執盞言曰 遊之適 大率有三 地之勝也 時之佳也 友之良也 今以景釀爲地 清和爲時 諸君爲友 地得其勝 時得其佳 友得其良 雖謂之四美具 二難并可也 今日之遊 不亦樂乎 況兪楊二上舍負當世才華重望 所蓄甚富 而夷考其志 常有以自謙 益之而白 愷悌溫雅 翛然有出塵之標 皆可謂席上珍矣 顧余性性 獲參於數君子之後 豈非榮且幸歟(後略).”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1585~1664)의 교유 문학을 고찰하였다. 간송은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의 장점을 흡수하여, 두 학파의 관계를 융화시키려고 평생 노력한 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간송 작품 중에 교유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간송집』 소재 작품 중에서 교유 인물과 관련된 교유시(交遊詩), 선유(船遊) 관련 작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송이 저술한 선유록(船遊錄)은 교유 인물들과 즐겼던 뱃놀이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의 교유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간송은 편벽되고 경박한 본인의 단점을 벗의 유익함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교유 인물과의 나이 차이나 물리적 거리 등과 같은 요인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교유와 선비정신을 강조하였다.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 나타난 인식 양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존현(尊賢) 정신과 시대(時代) 인식이 나타난다. 간송은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 매몰되지 않고, 교유 인물들과의 지속적인 교유와 선유(船遊) 활동 등을 통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에 대한 존현(尊賢) 정신을 심화시켰다. 둘째, 풍류(風流) 정신과 처사(處士)적 지향성이 나타난다. 산림처사로서의 삶이 현실과 단절된 것이 아니었으며, 자연 속에서 조화로움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간송의 입장에서 유선(遊船) 체험은 한정된 자연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기개를 펼치는 중요한 계기였다. 셋째, 지음(知音)과 연대(連帶) 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간송의 교유시와 선유 관련 기록을 통해서, 그가 고립되지 않고 평생 동안 끊임없이 주변인들과 교유하고 소통했음을 알 수 있다.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 나타난 특징은 17세기에 산림처사(山林處

士)로 지냈던 문사(文士)의 소통 방식과 그들의 문화적 공유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출사(出仕)를 하여 현실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당대 지식인으로서 그들만의 소통망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였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임도의 교유 문학에는 선비정신이 구현되어 나타난다. 자연 속에서 수양하며 산림처사로 지내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였고, 성현의 도를 따라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송 조임도의 교유 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일정 부분 고찰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간송집』 소재(所載) 다른 장르의 작품 연구와, 동시대 다른 문인들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조임도, 『澗松集』, 민족문화추진회, 1992, 3~249쪽.
『國譯 澗松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www.itkc.or.kr/main.do>)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DB (<http://peopl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http://encykorea.aks.ac.kr>)
- 김소연(2020),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84집, 한국문학회, 107~140쪽.
김우형(2007), 「간송 조임도의 학문과 사상 - 여헌 장현광과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9~56쪽.
김학수(2010), 「선유를 통해 본 낙강 연안 선비들의 집단 의식 - 17세기 한려학인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41~98쪽.
박순남(2005), 「간송 조임도의 〈三綱九絶句〉에 대하여」, 『국제지역통상연구』 2, 국제지역통상학회, 21~49쪽.
오용원(2007),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선주논총』 10,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원, 69~90쪽.
오용원(2010),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시세계」,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409~429쪽.
허권수(2001),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을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 11,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358~387쪽.

ABSTRACT

Research on Kansong Cho Imdo's companionship literature:
Focusing on the poetry of companionship and boating

Choi, Yun-jeong

This study examines Kansong Cho Imdo's (1585-1664) companionship literature. Kansong has been evaluated as a scholar who attempted to combine the Toegye and Nammung Schools during his lifetime, adopting the advantages of each school. This research applies the concept of companionship literature, which comprises a major portion of Kansong's works, to highlight i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This research limited its scope to literature related to companionship and boating.

The sources related to Kansong's boating record his plays with companions on boat and is regarded as important material that shows his attitude toward companions. Kansong tried to overcome his prejudiced and imprudent character by meeting valuable friends. Based on trustworthiness in human relationships, he placed greater importance on spiritual friendship and the Seon-bi (선비) Spirit than on their relative age or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m.

Kansong's literature can be characterized into three aspects. The first is his respect for the holy man and perception of his era. The second is his Pungryu (풍류) spirit and targeting for spiritualizers. The third is his intimate friendships and strong team spirit. These aspects show the ways of communication and shared awareness among literary writers of the 17th century. They did not participate in political issues as public officials; however, they continuously responded to the ongoing issues as intellectuals through ties of friendship and striving for unity. In addition, Kansong's companionship literature realized the Seon-bi spirit. He described the will to brighten the world according to the way of the holy man, maintaining an interest in the real world but remaining spiritual by nature.

Key Words

Kansong Cho Imdo, Spiritualizer in the nature, Companionship literature, Seon-bi(선비) Spirit, Respect for holy man, PungRyu (풍류), Intimate friendship, Unity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재	확	정	일	:
				2022.02.16.	